

#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인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

오치돈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연구위원  
(chidon@cepik.re.kr)

- I. 들어가며
- II. 건설기술인 현황과 이미지
- III. 일본의 건설기술인 이미지 개선활동과 시사점
- IV. 맺음말

# 6

## ■ 국문요약 ■

건설기술인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에게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건설기술인과 산업에 대한 이미지 실태를 파악해 보고 일본의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이미지 개선 활동도 건설산업이 무엇인지, 건설기술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전문성을 활용해 어떠한 사회적 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지 등 스토리텔링을 가진 이미지 개선 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이미지 개선 활동은 어느 하나의 기관이 아닌 정부와 민간영역 모두가 참여하여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 이미지, 건설산업 이미지

## I. 들어가며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불어닥친 각종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 수주,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이를 극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건설기술인은 이러한 역할의 중심에 서서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에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우며, 위험한 직업으로 인식되는 등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건설기술인의 부정적 인식은 산업 전체의 이미지와 그 맥을 같이 하는데, 이는 유능한 청년층 인재의 유입 부족과 젊은층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면서 인력수급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건설분야 인력정책은 기능인등급제 시행, 적정 임금제 추진 등 대부분 생산인력에 해당하는 기능인력 중심의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최근 종료된 제6차(18~22년)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건설인력 관련 정책도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건설기술인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건설기술인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인력수급 안정화 측면에서 적정 인력의 유입을 위해 건설기술인, 나아가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의 노력도 병행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건설기술인의 현황을 살펴보고, 건설기술인과 산업에 대한 이미지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일본의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건설기술인 현황과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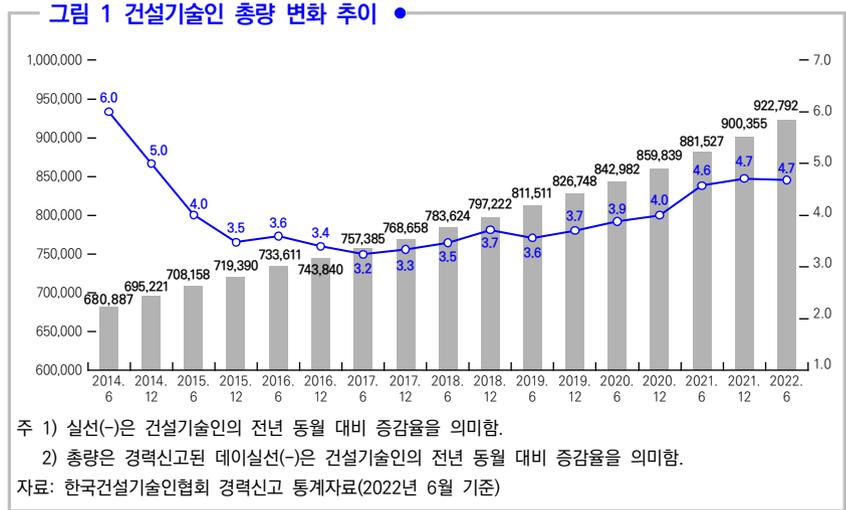
### 1. 건설기술인 통계 현황

#### (1) 총량 추이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sup>1)</sup>에 등록된 건설기술인은 약 92만여 명으로서,

1)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함. 총 5개 기관이 경력신고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본 고에서의 통계는 건설기술인의 95% 이상을 신고 받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함.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약 4.7%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지금까지 건설기술인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느 정도 양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연령별 추이

총량 추이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통계지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연령별 건설기술인의 비중을 살펴보면, 20대 3.8%(35,080명), 30대 12.9%(118,444명), 40대 31.5%(290,413명), 50대 30.8%(284,038명), 60대 16.4%(151,247명), 70대 이상 4.6%(42,218명)로 구성되어 50대 이상이 절반 이상(477,503명, 51.8%)을 차지하고 있다. 20대 건설기술인은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했지만 30·40대 건설기술인은 각각 3.1%, 1.4% 감소한 수치이다. 이와 반대로 고령층 건설기술인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50대 8.7%, 60대 이상은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인의 고령화 문제 가운데 30대 건설기술인의 수가 지속적인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우려스럽다. 30대 건설기술인은 2019년 (-)9.0%, 2020년 (-)7.4%, 2021년 (-)5.7%로서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감율을 토대로 연평균 증감률을 계산하여 향후 10년 후인 2032년의 건설기술인 인원수를 단순 예측한 결과, 전체 건설기술인 중 30대 건설기술인은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50대 이상은 42.9%에서 72.8%로 증가하고, 60대 이상으로 고령층 범위를 좁혀도 20.8%에서 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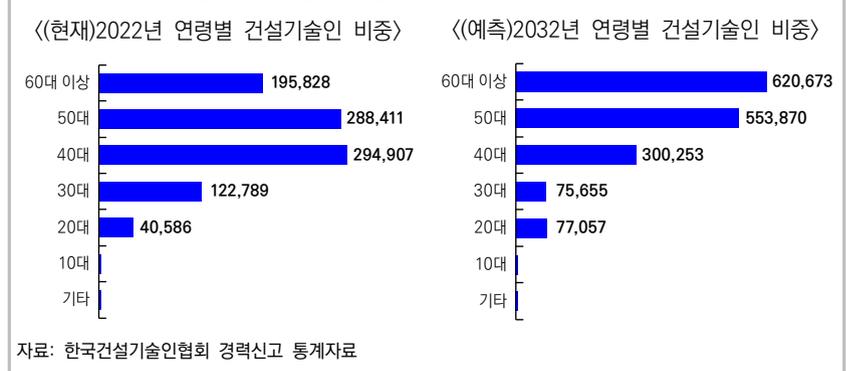
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2)</sup>

**표 1** 연령별 건설기술인 증감률 현황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대	7.3%	8.5%	8.2%	6.8%
<b>30대</b>	<b>-9.0%</b>	<b>-7.4%</b>	<b>-5.7%</b>	<b>-3.1%</b>
40대	1.8%	0.7%	-0.2%	-1.4%
50대	7.5%	7.3%	8.4%	8.1%
60대 이상	13.9%	13.7%	13.4%	12.7%

자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통계자료(매년)

**그림 2** 연평균 증감율을 활용한 연령별 건설기술인의 수 변화 ●



## 2. 건설기술인 이미지 실태

### (1) 긍정적/부정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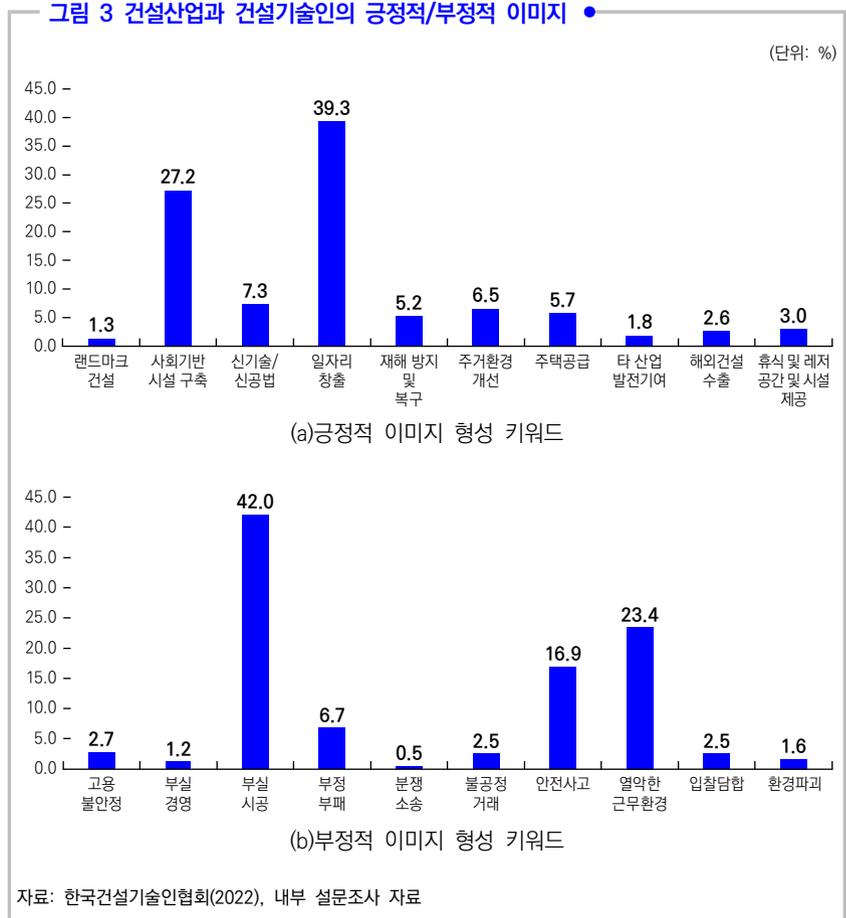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인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이미지를 살펴보면, 먼저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은 일자리 창출, 사회기반시설 구축, 주거환경 개선,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국가경제 발전, 사회적 기여와 연관된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대로 부정적 이미지는 열악한 근무환경, 부실시공, 안전사고, 부정·부패 등 근로환경, 업무수행 등과 연관된 이미지가

2) 연평균 증가율은 특정 대상이 일정 기간 동안 매년 평균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였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주로 주식 시장이나 기업의 투자 결정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기술인의 5개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연평균 증가율(Compounded Annual Growth Rate: CAGR)을 계산하여 향후 건설기술인 인원수를 예측하였음.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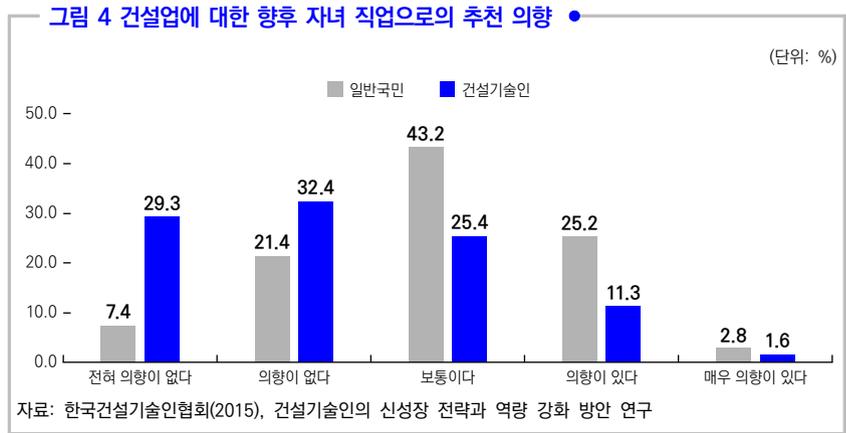
$$CAGR(t_0, t_n) = \left( \frac{V(t_n)}{V(t_0)} \right)^{\frac{1}{t_n - t_0}} - 1$$

이 때  $V(t_0)$ 는 최초 년도의 값,  $V(t_n)$ 는 최종 년도의 값,  $t_n - t_0$ 는 년수를 의미함.

높다. 이는 건설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으로는 인식하고 있지만, 투명성, 도덕성, 안전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인에 대한 이미지는 산업으로의 유입에 대한 인식과도 직결되는데, 일반 국민과 건설기술인이 건설업을 향후 자녀의 직업으로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 보다 건설기술인 스스로가 추천할 의향이 없다는 부정적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으로서의 매력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가발전과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자긍심과 자부심이 낮아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 유능한 인재 유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2) 예비 건설기술인의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인에 대한 이미지

예비 건설기술인에 해당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인식하는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인에 대한 이미지 평가 결과, 첨단기술과 종사자 영역에서는 높은 이미지 점수를 받았지만, 성실시공, 기업윤리와 근로환경 영역에서는 3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산업과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이미지는 미래의 근로자가 산업으로의 진입을 희망하는지와 관계되는 것으로서, 유능한 인재의 유입 및 인력 수급 안정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에 해당한다. 유능한 인재 유입과 기업의 활발한 인력 채용은 산업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다시 관련 전공자의 수가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 예비 건설기술인에 해당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인식하는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인에 대한 이미지 평가 결과는 다소 우려스럽다.

**표 2** 미래 건설기술인(고등학생/대학생)의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인에 대한 이미지

이미지 항목		고등학생		대학생		평균
		공업계	인문계	건설관련	비건설관련	
기술력 및 도덕성	첨단기술	3.86	3.94	3.79	3.82	3.85
	성실시공	2.54	2.23	2.42	2.23	2.36
	기업윤리	2.42	2.21	2.31	2.21	2.29
종사자 및 근로환경	종사자	3.60	3.52	3.44	3.37	3.48
	근로환경	3.11	2.81	2.83	2.63	2.85

자료: 신원상 외(2021a; 2021b)의 조사내용을 저자 재정리, 오치돈(2023), "지속성: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기술인력 양성 기반 조성", 국토연구원, 국토(특집: 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확립), Vol.497.에서 재인용

### III. 일본의 건설기술인 이미지 개선활동과 시사점

우리나라의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인 관련 이미지 개선 활동은 기술지원 봉사활동,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한 활동과 교육·훈련 관련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신원상, 2021a, 2021b). 현재의 부정적 이미지 키워드를 고려하였을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영역에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이미지 개선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 1. 일본의 건설기술인 이미지 개선활동

##### (1) 정부차원의 활동

일본은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의 정비국이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미지 개선활동의 대상도 일반 국민을 비롯해 관련 단계 또는 기관,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활동은 국토교통성의 주요 업무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함께 하고 있어 국토교통 관련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성이 수행하는 업무를 비롯해 건설기술이 일상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도움이 되는지 체험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 5 일본 국토교통성의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활동 운영 프로세스



## (2) 민간영역에서의 활동

민간영역에서의 활동은 건설업 협회와 건설업 전문 단체 연합회가 주도하고 있는데, 건설업의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과 관련된 교육활동 등 건설산업의 취약 부분인 인력부족, 작업환경, 안전·재해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활동은 학생, 일반국민 등 각 대상별 특성에 맞게 이미지 개선 활동 내용을 정의하고 시행함으로써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3** 일본 민간영역에서의 건설산업 및 건설기술인 이미지 개선 활동

기관명	시행대상	수행내용
일본 전국 건설업 협회	일본국민, 학생, 종사자	건설현장으로 GO!
	일본국민	건설업 사회공헌 활동
건설산업 전문 단체 연합회	일본국민, 학생, 종사자	건설현장으로 GO!
	일본국민, 학생	전문 공사업 파노라마
	일본국민	재해복구 활동
	일본국민	치안·안전·방재 활동
	일본국민	환경 보호·보전 활동
	일본국민	교육·학교 지원 활동
	일본국민	마을 만들기 경제(지역산업, 상가 등) 활동
	일본국민	보험·의료·복지 활동
	일본국민	문화·예술·스포츠 진흥에 관한 활동
홋카이도 건설업 협회	일본국민, 종사자	기타활동
	일본국민, 학생	팸플렛 "건설 직업이란" 제작 및 배포
아오모리 현 건설업 협회	학생	건설 산업 현장 견학현장 실습
	고등학생, 종사자	고용 개선 사업
이와테 현 건설업 협회	건설업 종사자	건설 교육 센터 운영
	일본국민	건설 축제
이바라키 현 건설업 협회	일본국민, 유아/학생	모래 클린 활동
	지역학생	건설체험 학습
	일본국민, 지역학생	인재 육성·지역공헌활동 위원회 구성
토치기 현 건설업 협회	건설업 종사자	사회공헌 재해예방 활동
	지역학생	건설업 인재 육성·확보 사업
도쿄 건설업 협회	지역학생	건설관 운영
야마나시 현 건설업 협회	일본국민	환경 미화 지역 활동
아이치 현 건설업 협회	공업계 고등학생	고용 개선 추진 사업
미에 현 건설업 협회	공업계 고등학생	현장견학 및 인턴십 활동
도야마 현 건설업 협회	여성 기술자	여성 건설기술자 좌담회
오사카 건설업 협회	일본국민, 학생	작업 박물관
	일본국민	부모와 자식의 현장견학

자료: 신원상(2021b)

## 2. 시사점

일본의 건설산업 및 건설기술인 이미지 개선 활동은 건설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 전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초점을 맞추

#### IV. 맺음말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관련 활동은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 정비 및 수리 등 건설업이 가진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이러한 활동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전문성 홍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의 관심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이러한 관련 스마트 기술이 건설사업의 다양한 업무에 활용되면서 전문성이라는 범위도 매우 넓어지고 다양화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이미지 개선 활동도 건설산업이 무엇인지, 건설기술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전문성을 활용해 어떠한 사회적 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지 등 스토리텔링을 가진 이미지 개선 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이미지 개선 활동은 어느 하나의 기관이 아닌 정부와 민간 영역 모두가 참여하여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인이 국가와 국민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변함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계속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부정·부패 관련 소식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산업과 종사자의 이미지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일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산업과 기술인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으로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며, 국가 차원에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영역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활동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신원상, 오치돈, 곽한성, 배상희(2021a), 미래 건설기술인의 진로 희망 실태분석 및 이미지 개선방안,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2. \_\_\_\_\_(2021b), 미래 건설 기술인력의 건설산업 이미지 실태분석,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3. 오치돈(2023), 지속성: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기술인력 양성 기반 조성, 국토연구원, 국토(특집: 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확립), Vol.497.
4. 한국건설기술인협회(2015), 건설기술인의 신성장 전략과 역량강화 방안 연구.
5. \_\_\_\_\_, 건설기술인 통계자료 2001-2021년.